|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②	2	18	②	2	35	③	2	35	①	2
2	①	2	19	④	2	36	④	3	36	⑤	3
3	③	3	20	④	2	37	①	2	37	③	2
4	⑤	2	21	②	3	38	②	2	38	⑤	2
5	④	2	22	①	2	39	④	2	39	④	2
6	④	2	23	⑤	2	40	②	2	40	①	2
7	③	2	24	⑤	3	41	③	2	41	②	3
8	③	3	25	①	2	42	①	2	42	⑤	2
9	②	2	26	④	2	43	①	2	43	②	2
10	③	2	27	⑤	2	44	②	2	44	②	2
11	⑤	2	28	③	2	45	②	3	45	③	2
12	③	2	29	⑤	2						
13	⑤	3	30	②	2						
14	①	2	31	②	3						
15	①	2	32	③	2						
16	③	3	33	④	2						
17	②	2	34	⑤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1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편지의 답장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안정복은 권기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득한 뜻이 마음을 가로막을 때 생길 수 있는 병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권기명은 선현의 글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선현의 글을 주석대로 읽더라도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 그 뜻을 해석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의 견해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야 자신의 견해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은 안정복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③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학문의 기본이라는 점은 안정복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④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단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은 안정복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환기하는 정서에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독서라는 점은 안정복과 권기명의 입장 모두와 무관하다.

2.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문제이다.

안정복은 자득한 뜻이 마음속을 가로막으면 선현의 교훈에 대해 잘못된 점만을 찾아내려는 병폐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이 갖추게 된 주장에 만족을 느껴 선현들을 경시하는 습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이유 역시 책에서 잘못된 점만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경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안정복 역시 독서에서 자득이 귀중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다만 그는 자득한 뜻이 마음속을 가로막아 생기는 병폐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③ 독서에서 만족을 느껴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상황이므로, 만족감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안정복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각자에게 물어 온당한 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각자에게 물어도 온당한 귀결점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현들을 경시하는 습관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안정복에게 있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학문을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학문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안정복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학생의 독서 경험에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이미 정의, 국가, 이데아 등 익숙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여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동원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이는 안정복의 입장에서 조언할 만한 내용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플라톤의 『국가』를 한 번 읽어 보니 무난히 읽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안정복의 입장에서 책을 한 번 읽어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읽어 뜻을 음미해 보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② 학생은 플라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안정복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이 잘 이해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허한 태도를 지니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④ 학생은 섣부르게 플라톤의 생각 중에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정복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해 줄 수 있다. ⑤ 학생은 한 번 읽어 무난히 읽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안정복의 입장에서 선현의 교훈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얕게 받아들여 사심이 앞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해 줄 수 있다.

[4 ~ 9] 인문-사회 통합

4.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행위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가)에서는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이라는 두 철학적 입장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형법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만 물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우리 형법이 약한 결정론의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결정론에 관한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하지만 (가)에서도 사례를 들어 각 입장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이지만, (나)에서도 그것들이 실제 법률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는 우리 형법이 자유 의지의 존재를 명시한 이유들을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 의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문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입장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약한 결정론은 자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다. 강한 결정론도 이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뿐이다.

[오답풀이] ①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 모두 원인이 없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은 모두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어 항상 하나의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진다. 약한 결정론 역시 선행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 결과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② 강한 결정론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결정론을 인정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약한 결정론은 결정론을 인정하면서 자유 의지도 인정한다. ③ 강한 결정론은 선행 원인이 있을 때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약한 결정론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가 선행 원인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내적 욕구나 신념 체계가 선행 원인인 경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고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⑤ 처벌이 책임 추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약한 결정론이다. 처벌은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 추궁인 것이다. 반면 강한 결정론에 따르면 처벌은 죄의 억제이다.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일반인을 보호하거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처벌의 의미라는 것이다.

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논리학자가 결정론을 평가할 때 근거로 삼을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유권자 A는 신경외과 의사인 B가 심어 놓은 장치로 인해 대통령 후보 X, Y 중 X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A의 자유 의지와 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약한 결정론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풀이] 'A의 투표 행위는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문에 따르면 약한 결정론은 다른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약한 결정론을 지지해 주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선택은 전기 자극에 의해 달라진 것이 아니다. A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X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② 장치의 작용에 의해 선택이 결정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다. ③ 뇌 속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도 내적인 신념 체계가 원인이 되어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기>의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⑤ <보기>의 사례에서 A가 처음에 Y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했다면 뇌에 가하는 전기 자극은 이를 바꾸어 X를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요를 받은 행위자는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불법이라는 판단 역시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심신 장애를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가 자유롭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연결 지어 이해하는 약한 결정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② 형법적 비난이 가능할 때에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형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약한 결정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④ 심신 미약의 경우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 의지가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책임도 부분적으로만 묻는 것이다. 이 역시 약한 결정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⑤ 범죄 성립의 다른 요건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충족되어도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의 의사 결정이 자유로울 때 범죄로 규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약한 결정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세 가지 종류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나)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책임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이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행위자가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된다. 심신 장애를 스스로 일으키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협박을 받아도 행위의 의사는 지닌다. 또한 '의사'가 없다고 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강요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다. ② 을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타인에 의한 강요도 아니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④ 재산상의 피해를 미끼로 협박당하는 상황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로 인한 불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므로 형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갑은 특정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지우다'는 '지다(책임이나 의무를 맡다.)의 사동사.'의 의미이므로, '부담을 지우다'와 의미가 가깝다.

[10～13] 기술

10.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대상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디스크는 인메모리 컴퓨팅이 구현된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꺼질 때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를 옮겨 두는 저장 공간으로 사용된다. 켜질 때 디스크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에 옮기므로, 인메모리 컴퓨팅이 구현된 컴퓨터에서도 디스크가 필요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CPU는 메모리나 디스크에 대해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일인 접근을 할 수 있다. ② 메모리에의 접근 속도는 디스크에의 접근 속도에 비해 10만 배 빠르다. ④ 인메모리 컴퓨팅은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에 복사해 놓고 사용한다.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복사한 후 CPU가 메모리에만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⑤ 메모리에만 접근하는 방식인 인메모리 컴퓨팅이 데이터베이스 분석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때에는 온디스크 컴퓨팅 대신에 인메모리 컴퓨팅을 주로 사용한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 트리를 인덱스로 사용할 때에는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CPU가 요청한 키에 대응하는 하나의 주소를 인덱스에서 정확하게 찾은 후 이 주소로 레코드의 데이터를 찾을 때 디스크로의 접근은 한 번 이루어진다. 메모리에서 주소까지 찾은 후 해당 주소로 디스크에 단 한 번 접근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인덱스에는 키-주소 쌍, 혹은 주소만 담긴다. 원하는 레코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참조 정보만 담겨 있는 것이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들을 일일이 검색, 대조해 가면 인덱스가 없어도 레코드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③ 온디스크 컴퓨팅의 경우에도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가급적 줄인다. 디스크로의 접근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메모리로의 접근 횟수를 가급적 줄이는 것은 아니다. ④ 온디스크 컴퓨팅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만 메모리에 임시로 옮겨 놓는다.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은 디스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들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 트리는 키-주소 쌍이 n개 있을 때 최대 n+1개로 분기된다. 키-주소 쌍이 2개 담긴 노드에서 항상 3개 이상의 노드로 분기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의 노드로 분기되는 것이다. 2개의 노드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키가 2개 있을 때 번호가 연속된 값이라면 그 중간으로 분기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인메모리 컴퓨팅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옮겨 놓고 작업하므로, T 트리 인덱스 역시 메모리로 옮겨진 후에 사용될 것이다. 온디스크 컴퓨팅 역시 디스크로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해 레코드들과 달리 B 트리 인덱스와 같은 인덱스의 경우 메모리로 옮겨 사용한다. ② B 트리 인덱스나 T 트리 인덱스는 모두 부모 노드에서부터 검색이 시작된다. 부모 노드에서 시작하여 검색했을 때 대상을 찾지 못하면 분기되는 규칙에 따라 자식 노드를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④ T 트리 인덱스는 항상 최대 2개의 노드로만 분기되는 형태를 띤다. 요청 키가 노드의 최솟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자식 노드 쪽으로 분기되어 검색한다. ⑤ B 트리는 키와 주소를 쌍으로 묶어 저장하지만 T 트리는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소, 그리고 키의 최솟값과 최댓값만 사용한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특정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인메모리 컴퓨팅이 구현된 컴퓨터의 세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 [B]로 보아 T 트리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CPU의 요청 키에 따라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 확인되지 않은 값들을 추론해 보아야 한다.

[정답풀이] ㉱는 키가 최솟값인 80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 노드에서 키가 최소 30에서 최대 50인 것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50보다는 더 큰 값이어야 한다. 주소 7은 부모 노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 주소 7인 레코드의 데이터가 제공될 수는 없다. 따라서 키가 60이고 주소 8인 레코드의 데이터가 CPU에 제공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주소 2에 해당하는 키는 100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CPU는 [A]에 있는 키만 요청하므로 요청 키가 120이면 ㉮는 120이다. ② 부모 노드에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의 키에 해당하는 주소가 들어 있다. 주소 1과 7은 최솟값과 최댓값에 해당하므로 주소 5에 해당하는 키가 40임을 알 수 있다. 즉 요청 키가 40이면 주소 5인 레코드의 데이터가 제공될 것이다. ③ 주소 ㉰에 해당하는 키는 30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주소 6, 키 10에 해당한다. ④ ㉯와 같은 노드에 들어 있는 주소 3의 키는 100이다. 따라서 ㉯는 주소 4이며 이에 해당하는 키는 80일 것이다.

[14～17] 예술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사실주의의 정신이 완전히 퇴색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예술 사조들의 대두로, 초창기의 전통적 사실주의에서처럼 진실이 단일하다고 간주하지 않을 뿐이다. 예술가들이 여전히 예술을 통해 진실의 실마리를 밝히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소멸하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회화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소재들, 예컨대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을 사실주의 회화에서는 예술의 소재로 삼았다. ③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화가 쿠르베는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의 내밀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다. ④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주제 즉 낭만주의 회화를 선호하던 감상자들에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소년이나 노인과 같은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은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없는 '추한 것'이었다. 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했던 전통적 사실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표현하려 한 새로운 예술 사조들이 대두한 20세기에 미술사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인물들에 대해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쿠르베의 사실주의 회화에 공감한 화가들)이 평범한 소재를 다룬 것은 맞지만 초월적인 미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은 현실의 세계에서 체험한 경험적, 시각적 정보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단 하나의 진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④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리고자 했던 ㉠은 세계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식에 대해 깊이 탐구했고 이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⑤ ㉠은 산업 혁명이 초래한 사회 변화의 이면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계층의 모습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려 했다.

16. [출제의도] <보기>의 관점에 따라 지문에 제시된 작품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상화를 추구한 것을 옹호하는 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대상의 이상화가 드높은 가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 현실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희망을 나타내는 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라 쿠르베의 작품 「돌 깨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보기>는 이상화가 인생의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돌 깨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순을 표현하는 데 그칠 뿐, 그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답풀이] ①「돌 깨는 사람들」에서 어린 소년과 노인의 모습을 함께 배치한 것은 적정한 노동 연령이 아닌 소년과 노인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가난,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현실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려는 것이지 젊은 세대와 앞선 세대의 관계를 이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쿠르베는 「돌 깨는 사람들」에서 대상의 이상화를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의 문제를 외면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④「돌 깨는 사람들」에서는 노동자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부각하여 묘사하지 않았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추한 것'에 해당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모습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다. ⑤「돌 깨는 사람들」에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하지만 그것이 채석장의 풍경이 어색하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형상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포착'은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의 뜻이다.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은 '부착'의 뜻이다.

[18～21] 현대소설

➔ 김유정, 「금 따는 콩밭」

1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중략' 이전 부분에는 영식과 수재가 금을 찾겠다며 콩밭을 파헤치다가 마름이 찾아와 영식에게 역정을 내는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 '중략' 이후 부분에는 남편(영식)이 아내에게 산제를 지낼 테니 양식을 꿔 오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이놈 풍 치는 바람에～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나 '요즘 와서는～북새를 피우는 것이다.' 등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전날이라면～쭈뼛할 게다.'와 같은 구어적 서술이나, '시졸 하나(시조창을 하듯이 느린 동작으로 꾸물댄다는 투덜거림을 나타낸 것이다.)'와 같은 구어적 표현들이 곳곳에 사용되었다. ⑤서술자는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영식과 마름에게 초점을 맞춰,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영식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춰 서술하며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영식은 지주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인데, 금을 찾느라 논일은 등한시하고 콩밭은 온통 파헤쳐 놓았다.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인 마름은 이를 보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마름 자신) 탓이다.'라는 서술에서 영식이 파고 있는 콩밭이 지주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이놈 풍 치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딴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 벌 논도 못 맸다. 논둑의 풀은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널려 있다.'라는 서술에서, 영식이 논을 파헤친 것이 아니라 논일을 내팽개친 채 콩밭을 파헤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입때껏 수재의 지휘를 받아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영식이 지금껏 수재의 지시대로 일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마름과 맞닥뜨'린 영식의 상태를 나타낸 서술이다. 그만두라는 마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식은 계속 콩밭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름을 보자 당황한 것이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으려는가.'를 보아도 ㉣은 마름이 아니라 영식에 대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는 상대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의 지시를 무시한 채 하고 있던 행동이 들켜서 당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등에 위 벽의 한쪽이 떨어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영식의 감정이 격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 ③㉢은, 소작농인 영식이 '논둑의 풀'이 '성큼 자'라도록 둘 정도로 논일을 등한히 한 것에 대한 지주의 분노를 보여 준다. 지주는, 영식이 논일을 등한히 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영식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영식이 '위풍을 보이'자 수재가 '군말 없이 고분하'게 구는 것은, 수재가 영식을 꾄 탓에 영식이 자신이 경작하던 콩밭을 파헤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놈 풍 치는 바람에'라는 표현과,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수재는 영식의 분노가 자기에게 쏠려 있음을 느끼고, 함부로 영식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고분고분하게 구는 것이다. 소작농에 불과한 영식이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작가가 권력의 강압에 순응하는 인물을 통해 식민 체제의 모순성을 드러내려 한다는 이해도 무리가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려는 것은 강압적 노동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부의 축적을 부추기기도 하는 식민 체제의 모순성이다.

[오답풀이] ①'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는 서술에서는, 이 작품 내에서 '금'을 찾으려는 욕망과 '콩밭'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일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금'을 찾으려면 '콩밭'을 파헤쳐야 하며, '콩밭'을 성실하게 경작하면 그 밑에 파묻혀 있다는 금을 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면서도 강압적 노동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식민 체제의 모순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황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영식은 지주에게 땅을 빌린 소작인으로서, 부지런히 경작하여 수확을 내지 않고 땅을 망치게 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영식의 '콩밭'은 지주-소작 관계에서 소작인의 근면한 노동을 강요하는 억압적 질서가 내재된 상징적 소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22～27] 고전시가

➔ 박인로, 「누항사」 |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채제공, 「와룡폭기」

2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고, 이 때문에 생계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오디새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라는 말로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감을 드러낸다. 반면 (나)의 화자는 가을의 결실에 보람을 느끼는 <제4수>나 하루의 일과에 보람을 느끼는 <제8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다)의 글쓴이도 '잠깐 동안 내가 나를 잊'을 만큼 '하늘에 노니는 것' 같은 자신의 한가한 전원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④(가)의 전반부에서 화자가 슬픔에 잠겨 있기는 하지만, 곧 '강호 한 꿈'을 상기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 낸다. 따라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폭포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근처에 은거한 글쓴이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그린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으며, 글쓴이가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23.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가 '아이들'에게 '밭 보러' 가자고 권하는 것은 밤새 내린 이슬에 농작물이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는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화자가 창에 기댄 채 '새벽을 기다'린 것은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지, 새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다. (지문에 싣지 않은 작품 전반부에는 화자가 먹고살기 위해 농사짓기에 나섰으나 소를 빌리는 데 실패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소를 못 빌리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 뒤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아침 내내 한탄하며'라는 표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쟁기'는 '날'이 잘 서 있지만, 그것을 끌 소를 빌리지 못했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 못 써서 아깝다는 것이지, 아까워서 못 쓰는 것이 아니다. ④화자는 자신이 키운 곡식을 먹는 삶에 보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이 부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부러워해도 얻을 수 없음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생계유지조차 힘든 화자가 '충효를 일을 삼'겠다고 한 것은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충효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를 실천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 지문의 '인간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으리'라는 구절은 자신의 가난을 포함한 모든 일이 운명일 뿐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라는 말로 자신의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면서, '충효'와 '화형제 신붕우'에 힘쓰는 일 외에는 '생긴 대로 살겠노라', 즉 타고난 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춘경'을 '던져두'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해 농사를 포기한다는 뜻이니, 생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그 대신에 '구복이 누가 되어', 즉 먹고사는 일이 장애가 되어 잊고 있었던 '강호 한 꿈'을 떠올린다. '강호 한 꿈'이란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자연을 벗 삼은 '안빈낙도'라는 선비들의 이상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화자는, '기수'의 물가에 자라는 '녹죽' 곧, 푸른 대나무를 군자라고 의인화하여 표현하며 그 덕성을 예찬하고 있는 『시경』의 시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고는 화자 자신도 '녹죽'을 '빼어난 군자들'이라고 호명하면서 '낚싯대'로 쓸 대나무를 하나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화자 역시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선비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를 마음에 떠올려 본 것이다. ④ 화자가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강호 한 꿈'을 떠올리고 '명월청풍'의 '벗'이 되어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뒤의 일로 제시된다. 이로 보면, 화자는 이상적인 자연과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현실의 생계 문제에 초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에서 ⓐ가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로, 오디새는 여름 철새로서 그 울음소리는 모내기를 할 시기가 끝나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를 못 빌려 봄갈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로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제6수> 초장은, 새벽빛이 나자 집을 나서니 지빠귀가 노래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는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는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든 '아이들'을 깨우며 밭에 나가자고 재촉한다. 이로 보면, '백설'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환기하는 생동감과 연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백설'은 농촌의 새벽을 깨우는 새라는 점에서, '저녁 새'는 글쓴이의 한가로운 처지를 환기하는 새라는 점에서 화자 또는 글쓴이가 친밀하게 느낄 만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디새'는 화자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형편에서 오는 막막함과 그로 인한 비애감을 느끼게 하는 새라는 점에서, 화자가 친밀하게 느끼기는 어려운 대상이다. ⑤'오디새'는 화자가 자신의 '한'을 북돋우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백설'은 그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라는 점에서, 또 '저녁 새'는 글쓴이의 한가로운 삶을 환기하는 새라는 점에서 화자 또는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6. [출제의도] 작품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여름철 태양에 달구어진 '땅'을 '불'에 빗대어 그 뜨거운 느낌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B]의 첫 문단은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의 인상을 '화살', 그리고 '지붕'에 엎은 '물독'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으며, 떨어져 내린 물이 일으키는 물보라의 인상을 '구슬'과 '눈발'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A]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한 구절이나 대화 형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B]의 경우 '누워 있는 돌'이나 '맹렬하게 두드리는 물'을 의인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돌'이나 '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27.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은 화자가 하루의 농사일을 마치고, 즉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대부로서의 이상을 포기한 후 자신의 본분으로 받아들인 일을 수행하고 돌아오며 느끼는 흥취를 담은 구절이다. (다)의 '잠깐 동안 내가 나를 잊는다'는 말은 정계를 떠나 자연에 은거해 있는 글쓴이가 잠시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뜻일 뿐, 이 말이 사대부로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었다는 데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구절 바로 앞의 '마음이 빛나고 빛나서'와 바로 뒤의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이 무념무상의 순간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할 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에는 나랏일에 나서기를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랏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이 말 속에는 화자의 아쉬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④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작가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국정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바람 소리'로부터 문무 제신들이 참여하는 대궐의 예식에서 나는 '패옥 소리'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나랏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을 작가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8 ~ 3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이대봉전」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난향은 '아씨가 만일 목을 매달아 죽을진대 부모와 낭군의 원수를 뉘라서 갚사오리까?'라며, 애황에게 부모를 위해 복수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절망적 상황에 봉착하여 자결하려는 애황을 만류하여 목숨을 보전케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오답풀이] ①애황은 왕석연과의 혼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할 때, 왕회는 애황과 정혼한 이대붕의 집안을 몰락시킨 장본인이자 애황의 부모가 죽음을 맞는 계기를 제공한 원수이므로, 애황으로서는 왕회의 아들 왕석연과의 혼사를 고려할 리가 없다. ② 왕회 집안의 시비는 난향이 애황인 줄로만 알고 '이런저런 말로 달래면서' '가마에 오르기를 간청하'고 있다. 난향의 정체를 의심하지도,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동산'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갈 곳이 없는 애황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주인공 애황이 왕회 집 노복들을 피해 도망 나온 사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B]에서 인물의 외양이 상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았다. [B]에 나타난 것은 장면의 묘사와 이로 인한 인물의 내면 심리,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슬프다!')이다.

30. [출제의도] 두 인물의 발화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난향은 '네 감히'나 '사대부 댁'과 같은 표현을 통해 신분적 권위를 내세우고 있으며, 밤중에 사대부의 집에 들이닥친 것이나 규중의 여인을 데려가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들어(즉, 법도를 내세워) 상대인 왕회 집의 시비를 꾸짖고 있다. [나]에서 마고 선녀는 대장군이 되어 '백만 군병을 거느'리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며 상대인 애황을 격려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난향'은 '제가 아씨의 옷을 입고 앉았다가 아씨의 치욕을 감당하리니'라고 하며 납치를 당할 위기에 처한 애황을 대신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을 위해 희생하는 조력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난향'에게 애황이 보답을 약속하는 대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애황은 그저 '나는 그러하려니와(나는 난향이 네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나) 너는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청춘을 보존하지 못하리로다(난향이 너는 나 때문에 청춘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며 안타까워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③'노인'은 갈 곳 몰라 방황하던 애황의 꿈에 나타나 '저 산을 넘어가면' '너의 선생 거기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애황이 마고 선녀를 찾아가 온갖 '법술'과 '병서' 등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따라서 '노인'은 주인공인 애황이 영웅적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하는 조력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백운암 세존'은 마고 선녀에게 애황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려 주고 그곳으로 가서 애황을 '구하라'고 하였다. 이는 조력자인 마고 선녀와 주인공 애황의 만남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마고 선녀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마고 선녀가 즉시 이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백운암 세존(부처님)'은 마고 선녀보다 높은 초월적인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마고 선녀'는 애황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에게 '병서를 숙독하게 하'여 애황의 '병법은 명재상 관중이나 명장 악의라도 당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자인 애황으로 하여금 남자들의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던 병법 분야에 통달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침으로써 애황이 영웅적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2 ~ 34] 현대시

➔ 김소월, 「삼수갑산」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3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으나 삼수갑산에 갇혀서 돌아가지 못한다. 화자가 처한 현실의 공간인 '삼수갑산'과, 화자가 돌아가고자 하는 공간인 '고향'을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계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어가 없다. 또 '물'이나 '산' 등 자연물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화자를 가둔 공간인 '삼수갑산'의 구성물일 뿐, 각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④ (가)에는 지방색을 드러내는 토속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삼수갑산'은 친화의 대상인 자연이 아니라 화자를 구속하는 공간이며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삼수갑산'을 못 벗어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탄식 어린 목소리가 담겨 있다. 화자는 '삼수갑산'을 주어로, 자신을 목적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삼수갑산'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은 '사과를 먹는다'라는 바로 앞 시행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뒤집어 놓았다. 시의 맥락을 보면 '사과'를 먹는 행위는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 행위인데, 이 '흙'은 모든 존재들이 '멀리 도망쳐 보려다' 결국에는 '돌아가고 마는' 곳이다(말하자면,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흙'은 '사과나무'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자 '나'라는 존재가 결국 돌아갈 곳이기도 하다. ㉡은 이러한 인식('나'의 몸이 돌아갈 '흙'의 자양분을 '사과나무'가 섭취한다는)을 바탕으로 '나'와 '사과나무'가 생명의 순환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화자 자신과 '사과'라는 대상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의 ㉡에서 사과는 '나'가 먹는 대상에서 '나'를 먹는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 '사과'와 '나'의 관계가 순환한다는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환적 관계를 확장하여 이해한다면, 이는 대상과의 일체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을 포함한 (가) 전체에서 화자는 삼수갑산에 갇힌 상황에 한탄하고 있을 뿐 대상에 맞서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내 못 가네'가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로 변주되는 것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탄식의 정서가 고조되는 것이므로 시상을 심화하는 것이지 시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또 (나)에서 '사과나무의 일부'가 '사과나무 가지'나 '사과나무 뿌리'로 변주되는 것은, '사과나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시상을 상세화하는 것이지 시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부분과 전체를 대비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아하하'는 (가)의 모든 연의 끝에서 반복됨으로써 각 연의 내용들을 화자의 탄식 어린 목소리로 응집시키며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돌아가고자 하는 '내 고향'은 제4연의 '님 계신 곳 내 고향'이라는 표현으로 변주되는데, 이는 그리워하는 '님'이 계신 곳으로 '고향'을 구체화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것이다. ③ (나)에서 '먹는다'라는 시어는 먹는 대상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먹는다'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면서도 시 전체의 흐름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④ (나)에서 '사과나무'가 자라는 바탕은 '흙'에서,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으로, 더 나아가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근원인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화자는 '사과나무'와 연관된 세계의 범위(사고의 대상)를 넓혀 감으로써, 하나의 존재('사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무수한 인연을 통해 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학생이 발표에서 사용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흑백 무늬로 이진수 형태의 정보를 담는 인식 코드를 사용하면 전자 기기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시킬 수 있겠지요?'라고 물은 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여기 QR 코드는 익숙하시죠?'라고 물은 뒤 청중의 대답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화면 1에 QR 코드를 제시한 뒤 QR 코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유통 및 물류 관리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화면 2에 바코드를 제시했다. 또 PDF 417은 중요 문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나 우편물 분류 등에 주로 활용되는 인식 코드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화면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화면 4에서는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현한 바코드와 가로와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한 QR 코드와 PDF 417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발표의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자세로 듣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검은색과 흰색의 점과 선을 어떻게 달리하여 정보를 담는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③ QR 코드 결제 시의 경험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④ 바코드나 QR코드에 담긴 정보가 이진수 형태라는 점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PDF 417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이유를 추론하며 듣고 있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38. [출제의도] 회의에 나타난 진행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현주'는 (가)의 처음 발언에서 '우리 동아리에서 매년 '별빛 캠프' 행사를 주최해 왔는데, 참가하는 학생들이 항상 적었어. 곧 행사를 열어야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며 논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음,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행사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학교 신문에 홍보 글을 싣자는 거구나.'라며 회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또 '준서야, 잠깐만. 영호가 아직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영호에게 먼저 이야기할 기회를 주도록 할게.'라며 회의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회의의 특정 발화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히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지혜'는 '학생들이 행사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참가를 꺼리'고 있다는 '영호'의 의견을 수용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제시한 방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40. [출제의도] 회의의 작문 계획이 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지혜'가 말한 '진행 순서대로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B]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안내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회의의 내용과 글의 초고를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학생들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별빛 캠프 행사가 지닌 의의를 밝히'고, '별빛 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며 끝맺'자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별빛 캠프는 천문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밤하늘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라고 하여 별빛 캠프의 의의를 밝히고, '별빛 캠프에 참가해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③이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수정 전후의 글을 읽고 수정을 위해 제안된 요청 사항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와 초고 수정안을 비교하면, 수정안에서 초고의 "별 사랑'은 방학 기간에는 지역 아동 센터를 방문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과학 실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별빛 캠프 이외의 행사 소개를 삭제하였고, 별빛 캠프 개최 일정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3 ~ 45] 작문

43. [출제의도] 글을 쓰기 전 떠올린 생각이 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학교의 우산 대여 서비스에 대여료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생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을 쓰기 전 ㄷ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 '학생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학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라며 서비스의 도입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아 ㄱ도 함께 생각했을 것이다.

44. [출제의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④ 비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공공 자산도 그만큼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바른 인식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특정 부분을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제시된 대여료 및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중 학생들이 대여한 우산을 소중히 다룰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같은 제도를 시행했지만 '훼손된 우산의 비율이 이전과 비슷했다는 이웃 학교 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A]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글쓴이는 대여료 및 보증금 제도가 '우산의 회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A]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⑤ [A]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것은 (가)의 글쓴이가 (나)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활용 방안이 아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단어를 지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르내리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이는 뒤에 오는 어근 '내리다'와 그 품사가 동일하다. 또한 '오르내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이는 대등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③ '요사이'는 명사이고, '사이' 또한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밤낮'은 ⓓ에서 부사로 쓰였다. 이는 '낮'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부사 '밤낮'은 '늘', '항상'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⑤ '쑥밭'은 명사이고, '밭' 또한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에서 '쑥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의 '앓셔다(앞서다)'는 부사어+서술어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현대 국어의 '굳세다'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의 '거츤말(거짓말)'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현대 국어의 '남다르다'는 부사어+서술어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중세 국어의 '뛰놀다(뛰놀다)'는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어미 없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현대 국어의 '덮밥'은 용언의 어간과 체언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37. [출제의도] 부정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부정의 보조 용언 '못하다'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여 앞말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못하다'에 의한 부정은 능력 부정이 아닌, '말하는 이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표현한다. ⓒ와 ⓔ를 통해, '못하다'는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여 앞말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함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풀이] ② ⓑ와 ⓒ는 부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는 '그가 그녀와 밥을 먹은 것은 어제가 아니었다.', '그가 어제 밥을 먹은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등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④ '아니하다'와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쓰인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부정은 '말다'를 써서 나타낸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발음에 적용된 규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흙긁개[흑끌깨]'에서의 '흙'은 [흑]으로 발음되었다. 이는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긁'은 [끌]로 발음되었다. 이는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답풀이] ③ '얽거나[얼꺼나]'에서의 겹받침 발음은 ㉣에 따른 것이다. ④ '옮아앉다[올마안따]'에서 '앉다'의 겹받침 발음은 ㉠에 따른 것이다. [올]은 겹받침의 'ㅁ'이 다음 음절로 연음된 발음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것 중에는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39.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내용을 올바르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를 고려하면, ⓐ에는 ㉠과 ㉢이 들어갈 수 있다. ⓑ에는 ㉣이 들어갈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에는 '접속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0 ~ 42] 매체

40.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에 나타난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생생한 현장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가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갯벌과 물새를 촬영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참고하여 뉴스 보도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자는 갯벌의 생성에 걸리는 시간을 설명하고, 갯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화면에서 갯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갯벌의 생성 과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갯벌의 생성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화면에서 갯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특정 매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메모에 따르면, ㉤에는 '갯벌 보호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슬라이드 자료에는 세계 유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세계 자연 유산 구역의 확대', '구역 내 개발 행위 관리', '철새 보호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로 볼 수는 없다.

[43 ~ 45] 매체 - 언어 통합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되는 라디오 대담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혈액관리본부의 권○○ 국장'을 정보 제공자로 한정하여 헌혈 참여율 감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문을 하는 '진행자' 또한 라디오 방송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와 같은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주된 청취자층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되는 라디오 방송에 해당한다. ③ (나)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를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라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수용자의 질문이 아닌,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⑤ 출처가 분명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행자는 ㉡에서 '-ㄹ 것 같다'를 써서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의사소통 성격과 정보 전달 방식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가 '자료'와 달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토대로 정보 수용자가 헌혈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혈 카페'를 헌혈 참여와 관련된 정보로 인식하더라도, 해당 장소의 위치나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 및 주의 사항 등 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정보가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